

연결어미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안 주 호

1. 머리말

국어 연결어미 중 ‘-길래’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길래’만을 단독으로 다룬 글은 물론 찾을 수 없고, 연결어미 전반을 논의한 글에서도 대부분 ‘-길래’를 연결어미에 등재시키지 않고 있다.¹ 그리고 ‘-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한 연구에서도² ‘-길래’를 독립적인 연결어미로 보기보다는 연결어미 ‘-기에’를 다루는 항목에서 ‘-기에’의 이형태로 국한시켜 ‘-길래’의 통사, 의미적 특성이 ‘-기에’와 같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기에’로 연결된 절을 ‘-길래’로 교체시킴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에’와 ‘-길래’가 분포한 전반적인 언어 자료 조사없이 ‘-기에’가 아무런 제약없이 ‘-길래’로 교체될 수 있다는 직관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은 언어 자료에서³ 나타나는 ‘-기에’와 ‘-길래’의 쓰임에 대해 분석해 보고,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길래’와 ‘-기에’가 이형태로 쓰이는 경우, 두 형태가 문법적인 제약없이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길래’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연결어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세우기보다도 아직 연결어미로 등재되지 않은 ‘-길래’에 대한 전반적인 쓰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자료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기에’와 ‘-길래’의 차이

2.1. ‘-길래’에 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 연구에서 ‘-길래’에 대해 다룬 글은 거의 찾을 수 없다.

¹ 연결어미 전반에 대한 연구로는 최현배(1937, 1965), 고영근(1975), 서태룡(1987), 김승근(1984), 권재일(1983), 윤평현(1989), 전해영(1989), 서정수(1994), 허웅(1995)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서정수(1994)와 허웅(1995)에서만 ‘-길래’를 연결어미에 올렸다.

² 이상태(1988, 1995), 서정수(1994), 허웅(1995) 등이다.

³ 여기서 이용된 언어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전편찬실에서 수집한 말뭉치 자료이다.

대개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기에’의 이형태로 취급하여 동일한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에서도 연결어미 ‘-길래’는 연결어미 ‘-기에’의 이형태로 간주하고 있으며,⁴ 또한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길래’를 ‘-길래’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⁵ ‘-길래’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철자화되지는 못한 형태로 보인다.⁶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길래’를 독립된 연결어미로 보기보다는 ‘-기에’의 입말체적인 이형태로 취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길래’는 ‘-기에’와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길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상태(1988, 1995)와 서정수(1994), 허 응(1995) 등에서 뿐인데, 대개 ‘-길래’가 ‘-기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언급에만 그치고 있어 ‘-길래’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상태(1995: 221)에서는 ‘-길래’를 ‘-으니까, -으므로, -오매, -기에, -는 만큼, -을새’와 같은 적극적 의미의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에’는 명사화소 ‘-기’와 조사 ‘-에’가 붙은 복합형으로, ‘-길래’는 이것이 형태론적으로 좀더 융합된 모습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서정수(1994: 1073-1111)에서는 ‘-기에’와 ‘-길래’를 종속접속의 ‘까닭’ 접속소에 넣고, 접속어구 ‘-기에’는 명사화소 ‘-기에’ ‘-에’가 합성된 형태이고 ‘-길래’는 ‘-기에’의 변이형태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⁷ 그리고 허 응(1995: 807-811)에서는 ‘-기에, -기로, -기’와 함께 이음법 중 “마땅함”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았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길래’를 ‘-기에’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데, 같은 어미의 이형태라면 실제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이 없이 서로 자유롭게

⁴ <동아 새국어사전>(1990/1995)에는 ‘-길래’ 항목은 없고 ‘-기에’만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1947년에 나온 학글학회 지은 <큰 사전>에서는 ‘-길래’와 ‘-길래’가 올라와 있는데 ‘-기에(1)’, ‘-관테(1)’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89년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길래’가 올라 있으나, 여기에서도 ‘-기에’ 항을 찾아 보라는 표시만 되어 있다. 1974년에 나온 <우리말 큰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에서는 ‘-길래’가 올라와 있으며 ‘-기에(1)’과 ‘-관테’와 같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81년에 펴낸 <현대조선말사전>(도서출판 백의 영인: 1988)에서는 ‘-길래’를 ‘말체’에서 쓰이는 이음도의 하나로서 ‘용언의 말줄기나 체언의 용언형에 붙으며, 원인이나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선회가 떠나길래 책을 부탁했다’는 예문을 들고 있다. ‘-기에’ 항의 풀이말도 위와 동일한데, 다만 ‘말체’라는 설명만 제외되어 있다.

⁵ 또한 金素月的 ‘삼주귀성’이라는 시에서도 ‘-길래’로 표기된 예를 찾을 수 있다.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허 응(1995: 810)에서 재인용함.

⁶ 이 글에서는 일반 언중들에게 일반화된 ‘-길래’로 표기하겠다. 말뭉치 자료에서도 ‘-길래’로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말 맞춤법 표준어 사전>(남영신 1990)에서도 ‘-길래’로 등재되어 있다.

⁷ 국어에서는 명사나 명사형 어미에 보문소, 어미, 조사 등이 결합되어 연결어미나, 선어말어미, 종결어미로 문법화하는 현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재영(1996), 안주호(1997)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 ‘-기에’와 ‘-길래’가 자유롭게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본 장에서는 ‘-길래’가 ‘-기에’의 이형태가 아닌 별개 형태소임을 두 형을 교체해 봄으로써 증명하려 한다.

2.2. ‘-기에’⁸와 ‘-길래’의 교체를 통한 비교

다음의 예는 ‘-기에’로 연결된 절이 ‘-길래’로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그가 먼저 나에게 인사를 하기에 나도 그에게 인사를 했다.

(1') → 인사를 하길래

(2) 그가 먼저 친절하게 하기에 나도 그랬다.

(2') → 하길래

예문 (1), (2)는 ‘-기에’로 연결된 문장으로서 후행절에 대한 ‘이유, 원인’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예들은 ‘-길래’가 ‘-기에’의 이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두 형태 간의 차이가 있다면 ‘-길래’가 쓰인 (1', 2')의 문장이 ‘-기에’가 쓰인 (1, 2)보다는 다소 입말체적이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1, 2)는 다소 의고적이고 격식을 더 갖춘 듯한 느낌뿐이다. 그러나 예문 (3)-(5)는 ‘-기에’가 ‘-길래’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3) 영희가 돈걱정을 많이 하기에 (영희의) 얼굴이 상했다.

(3') *하길래

(4) 나는 너희를 믿기에 (나는) 다른 말 안 했지.

(4') *믿길래

(5)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에 (나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

(5') *사랑하길래

예문 (3)-(5)는 ‘-기에’로 연결된 모든 절이 ‘-길래’로 교체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에’와 ‘-길래’가 다른 통사적, 의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기에’절이 ‘-길래’절로 교체되지 못하는 예문 (3)-(5)를

⁸ ‘-기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쓰이나, 이 글에서는 (5)와 같이 ‘-어서’로 교체되는 이유구문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 (1) 아득한 옛적의 불교라면 초탈을 자처하기에(*자처해서) 아주 유리했다.
- (2) 멀리로는 중국 해안지방까지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기에(*자행해서) 이르렀다.
- (3) 날마다 병서를 읽는가 하면 양곡과 병기를 저장하기에(*저장해서) 온 힘을 썼다.
- (4) 그러나 당신들, 나를 재판하기에(*재판해서) 앞서 정신감정부터 먼저 실시하고 있는 당신들에게는 ...
- (5) 그리하여 지식인은 민중의 전위이기에(전위이어서) 쉽게 피해받을 수 있는 ‘위험 지대’에 살고 있다.

‘-기에’절이 ‘-길래’절로 교체될 수 있는 예문 (1), (2)와 비교해 보면, ‘-기에’절이 ‘-길래’절로 교체될 수 있는 조건은 일차적으로 선·후행절 주어의 동일성 여부와 인칭으로 보인다. ‘-길래’절로 교체될 수 있는 예문 (1), (2)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지만, ‘-길래’절로 교체될 수 없는 예문 (3)은 후행절의 주어가 3인칭인 ‘영희의 얼굴’이며, 예문 (4)는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고, 예문 (5)도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다. 위의 예문 (3)-(5)를 (3’)-(5’)와 같이 바꾸어 보면 적격한 문장이 된다.

(3’) 영희가 돈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내가 위로해 주었다.

(4’) 그가 너희를 믿길래 나는 다른 말 안 했다.

(5’) 중민이가 그 여자를 사랑하길래 나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예문 (3)의 후행절을 1인칭 주어로 바꾼 (3’), 그리고 선행절의 주어를 1인칭이 아닌 것으로 바꾼 (4’), (5’)가 적격함을 보면 ‘-길래’는 ‘-기에’와는 달리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선·후행절 비동일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야 하며,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그런데 ‘-기에’를 다룬 조오현(1992)에서는 ‘-기에’가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비동일주어 제약이 있으며, 후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하며,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⁹ 그러나 이 제약은 ‘-기에’보다도 ‘-길래’에 더욱 제약적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더 들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6) (원장은) 그 점을 잘못 알고 있기에/*있길래 원장은 여태도 그 사람들과 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7) 저들은 가난했기에/*가난했길래 (저들은) 새것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았다.

(8) 미쓰리는 정상무가 몰주임을 알았기에/*알았길래 (미쓰리는) 팁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을 척척 해 주었다.

(9) (중하는) 평상시에도 그다지 말이 얼렸기에/*얼렸길래 중하는 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10) 그러나 정작 불로초를 찾은 이는 아무도 없었기에/*없었길래 차차 사람들은 사약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11) (나는) 기억에 주로 의존하였기에/*의존하였길래 (그것은) 정확하지 못했다.

(12) 주위의 상황이 이러했기에/*이러했길래 그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13) 수학적으로 검토해야만 의문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기에/*있었길래 음

⁹ 전혜영(1989: 110)에서는 ‘-기에’로 연결되는 문장이 서술문일 경우 비동일주어제약이 있다고 하다가, 추측을 나타내거나, 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까지 아울러 다루는 곳에서는 주어의 제약이 없다고 했다.

향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 (14) 그날은 휴일이 아니었기에/*아니었길래 유원지는 한산했다.
- (15) 그런데 야담은 야담이기에/*야담이길래 일상적 삶에서 더욱 멀어졌다.
- (16) 남조선에서 내가 의사였기에/*의사였길래 그랬나 봐.
- (17) 그는 저녁을 같이 들자고 했으나 나는 밖에서 이미 먹고 왔기에/*먹고 왔길래 거절했다.

위의 (6)-(17)의 문장은 모두 '-기에'가 쓰인 문장들로서 '-길래'로 교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길래'에는 선·후행절의 주어제약이 있는데 그것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6)-(9)의 문장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각각 '원장은, 저들은, 미쓰리는, 중하는'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안 된다는 제약을 지키지 못하여 '-길래'로 교체되지 못한다. 그리고 (10)-(13) 예문은 선·후행절의 주어는 다르나, 후행절의 주어가 각각 '사람들은, 그것은, 그도, 음향학적 연구가'로 1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길래'로 교체되지 못한다. 예문 (14), (15)는 주제가 같은 문장으로서 역시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니다. 또한 (16), (17)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1인칭인 '나'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기에'는 '-길래'로 교체되지 못한다.¹⁰

그러나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며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고,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는 '-기에'가 자유롭게 '-길래'로 교체될 수 있다.

- (18)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없길래 (나는) 부탁하는 거다
- (19) 소식이 없기에/없길래 (우리는) 저녁에야 입관을 했수다.
- (20) 동인을 더 모아야 주장하는 바가 확산될 수 있겠기에/있겠길래 (나는/우리는) 김현구, 허 보, 신석정을 가담시켰다.

예문 (18)-(20)은 '-기에'가 쓰인 문장들인데, '-길래'로 모두 교체할 수 있다. 이들은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인 '나, 우리'이며,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 아닌 문장들로서 이때는 '-기에'와 '-길래'가 모두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에'절이 '-길래'절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비동일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어

¹⁰ 그밖에도 '-길래'는 관형절 안에서 쓰이지 못한다.

- (1) 더구나 나는 외롭기에/*외롭길래 찾아갔던 집인 만큼 그렇게 하자고 선뜻 승낙했다
- (2) 나는 좀 심심하길래 영화를 보았다.
→ *내가 좀 심심하길래 본 영화.
- (3) 나는 그때 외롭길래 찾집에 들렀다.
→ *내가 그때 외롭길래 들른 찾집.

위의 예문은 '집, 영화, 찾집'을 꾸며주는 관형절 속에서 '-길래'가 쓰이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길래’로 연결된 절은 모두 ‘-기에’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다.

- (21) 한 집에서 개가 경청 짓길래/짓기에 (내가) 들여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 (22) 그가 하도 쩍쩍거리길래/쩍쩍거리에 (나는) 웬 호들갑인가 해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 (23) 어느날 제 엄마를 불쑥 찾길래/찾기에 (나는) 엉겁결에 엄마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했더니
- (24) 담임이 그 학교를 추천하길래/추천하기에 (나는) 무작정 올라왔지.
- (25) 그가 아무말도 없길래/없기에 나는 또 기거할 곳이 생겼구나 했지.
- (26) 이 녀석은 도대체 뭘 하길래/하기에 맨날 이렇게 늦는 거야.
- (27) 여편네 건사를 어떻게 했길래/했기에 이렇게 빠다귀만 앙상하게 만든 것이어?

예문 (21)-(27)은 모두 ‘-길래’가 쓰인 절인데, 모든 ‘-길래’절은 ‘-기에’절로 교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길래’가 쓰인 문장들은 후행절의 서법면에서 서술문일 경우와 의문문일 경우로 크게 나뉘는데, 주어의 제약이 있는 것은 후행절이 서술문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행절이 의문문일 경우는 주어의 제약이 없다.¹¹ 먼저 후행절이 서술문으로 된 (21)-(25)의 예들은 선·후행절 비동일 주어의 제약과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예문 (26)-(27)은 선행절에 의문사를 수반한 의문문이지만 모두 ‘-기에’로 교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모든 ‘-길래’절은 ‘-기에’로 교체될 수 있으나, 모든 ‘-기에’절이 ‘-길래’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기에’절이 ‘-길래’로 교체될 수 있는 조건은 앞서 살펴 봤듯이 선·후행절의 비동일 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는 ‘-기에’보다 통사적 제약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기에’가 격식체라면 ‘-길래’는 비격식체라는 점이다. 노대규(1996)에서는 입말도 비격식적 입말과 격식적 입말, 그리고 글말도 비격식적 글말과 격식적 글말로 나누었다.¹² 그의 분류에 따라 보면 ‘-기에’와 ‘-길래’를 선

¹¹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에 대해서는 3.1.1항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¹² 노대규(1996: 33-35)에서는 가족 사이나 친구사이의 개인적 대화나 소설, 희곡, 시나리오의 등장인물의 대화에서는 ‘주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이가 들을이나 방청자에게 존대나 예의를 갖추지 않고도 친근하게 쓰이는 말’인 비격식적 입말이 쓰이고, 회의, 토론, 강의, 뉴스 방송 등에서는 ‘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할이가 들을이나 방청자에게 친근감없이 존대나 예절을 갖추어 사용하는’ 격식적 입말이 사용된다고 했다. 또한 글말도 전문적인 학술 서적, 학술 논문, 법조문, 기사문, 보고서, 공문서 등에서는 ‘글쓸이가 읽을이에게 존대나, 예의나 또는 친근감을 갖출 필요없이 공식적으로 읽힐 것을

행연구에서와 같이 '글말체/입말체'로 구분하기 보다는 '격식체/비격식체'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실제 언어 자료에서 나타난 '-기에'와 '-길래'의 분포 차이는 입말과 글말의 차이이기보다는 격식적이냐 비격식적이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입말이기는 하지만 회의나 토론, 강의, 뉴스 방송 등에서는 격식체가 쓰이고, 글말이기는 하지만 편지글이나 일기문, 동화 등에서는 비격식체가 쓰인다.

- (28) 이 사람은 대학 4개년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했기에/?했길래 이 졸업장을 수여함.
- (29) 권력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한 그것에 봉사할 수 없기에/?없길래 애써 정당성의 문제는 접어두려고 한다.
- (29) 초기의 양성지나 각각 자기가 처한 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바로 인식하였기에/?인식했길래 그 문화 운영의 방향이나 우리 문화 전통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
- (30) 그러나 우리의 언론은 언론을 뛰어넘는 폭군 앞에서 신음하고 있기에/?있길래 우리 모든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언론과 더불어 갈구하고 있습니다.

(28)-(30)의 예문은 모두 '-기에'가 쓰였는데, 이 예문들은 졸업장, 학술서적 그리고 연설문 등에서 인용한 것들로서 모두 격식체이다. 이에 비해 다음 예문에서는 모두 '-길래'가 쓰였다.

- (31) 그렇지만 즈놈덜이 뭐이길래 떠나라 말라 호령줍니까?
- (32) 통장 반장이 먼저 나서서 파슈파슈 해 쌀길래 막지를 팔았지요.
- (33) 죽더라도 누구한테든지 털어 놓고 죽어야 허것길래 성님한테 올라왔고.
- (34) 술을 목으면서도 오씨는 강선주님이 뺨을 바꿨다고 좋아 허길래 우덜도 잘 됐다구 했당께요.

(31)-(34)예문은 방송 드라마, 문학작품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비격식체이다. 비격식체임은 위에서 짚은 글씨로 새겨진 방언형과 비표준형이 쓰인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에'는 격식체에 '-길래'는 비격식체에 쓰인다.¹³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후행절이 서술문일 경우 '-길래'는 '-기에'와 달리 비동일주어 제약과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야 하며, 선행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격식적 글말과 개인적인 서간문, 일기문, 동화 등에서는 '글썩이가 읽을이를 위하여 존대나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친근감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쓰이는 비격식적 글말을 나누었다.

¹³ 말뭉치 자료 I에서는 '이유'로 쓰이는 '-기에'와 '-길래'는 약 5:1의 비율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소설 27.4%, 수필 32.4%, 신문기사 10.1%, 잡지기사 30.1%로 수집하여, 격식체가 비격식체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어는 1인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기에’는 격식체에, ‘-길래’는 비격식체에 쓰인다. 따라서 ‘-길래’는 ‘-기에’의 이행태가 아닌 독립된 연결어미로 다름이 타당할 것이다.

3.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

3.1. ‘-길래’의 통사적 특성

‘-길래’는 후행절이 서술문일 경우와 의문문일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약간 다른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는 주어의 인칭 제약이다. 3.1에서는 ‘-길래’절의 특성을 주어의 인칭제약과, 시상의 제약, 후행절 서법의 제약, 후행절 서술어의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1. 주어의 인칭 제약

‘-길래’로 연결된 문장은 앞서 살펴보듯이 후행절이 서술문일 경우 주어의 인칭에 제약이 있다.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으로 실현되어야만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35) 시간이 늦었길래 난 일부러 권하지 않았다.
- (36) 잠상인들이 달아나길래 저도 쉼이 없어서 달아났습니다.
- (37) 또 학교까지 안 나오셨길래 전 몹시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 (38) 명옥이 언니가 안 나오길래 난 이번엔 누가 걸렸을까 하고 궁금해 했었다우.

위와 같이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적격하나 위 문장을 3인칭의 주어로 바꿀 경우 비문이 된다.

- (35') *시간이 늦었길래 그는 일부러 권하지 않았는데 …… .
- (36') *잠상인들이 달아나길래 김씨도 쉼이 없어서 달아났습니다.
- (37') *또 학교까지 안 나오셨길래 김선생님은 (이선생님이) 몹시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 (38') *명옥이 언니가 안 나오길래 그는 이번엔 누가 걸렸을까 하고 궁금해 했었다우.

그러나 후행문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닌 경우에도 ‘-길래’가 서술문으로 쓰인 경우를 찾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간접인용문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직접인용문으로 바꾸면 ‘-길래’가 화자 자신인 1인칭이 주어였는데, 간접인용문으로 되면서 주어가 중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길래’가 쓰인 것이다.

- (39) 왜 저번 직장을 옮겼냐는 질문에 (그는) 하도 그곳에서 철야작업을 시키

길래 회사랑 대판 싸우고 이리로 와 버렸다는 것이다.

- (40) 그러면서 그들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길래 '노우즈'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 (41) 그는 손님 접대하는 일이 제법 생기길래 며칠 전에 큰 맘 먹고 커피세트를 일본제로 장만하였노라고 말했다.
- (42) 마침, 정선이 아버지가 프레시를 들고 물 속으로 발을 넣길래 뒤따라 왔단다.

직접 인용문으로 전환시켜 보면 (39)는 “그곳에서 하도 철야작업을 시키길래 이리로 와 버렸어”, (40)은 “그들이 노래부르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길래 내가 가르쳐 주었어”, (41)은 “손님 접대하는 일이 제법 생기길래 (내가) 큰 맘 먹고 일제 커피잔을 마련했지”라고 피인용문을 설정할 수 있다. (42)도 “정선이 아버지가 프레시를 들고 물 속으로 발을 넣길래 내가 뒤따라 왔어”의 직접인용문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발화시에는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니어도 비문이 되지만,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도 비문이 된다. 아래와 같이 (43)-(45)의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지만 선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1인칭일 경우에도 적격하지가 않다.

- (43) *나는 사장님한테서 야단을 맞았길래 (나는) 기분이 나빴다.
- (44) *나는 외국에 갔다왔길래 (나는) 내가 파면된 줄 알았다.
- (45)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길래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

같은 뜻인 (43)의 문장을 '사장님이 나를 야단치시길래 나는 기분이 나빴다.'로 바꾸면 적격한 문장이 되는 것은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4)의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도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이며, (45)도 같은 이유에서 비문이 된다. 이것은 후에서 살필 '-길래'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길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근거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의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3)의 문장에서 주체를 바꾸어 '사장님께서 나를 야단치시길래 나는 기분이 나빴다.'로, (44)의 문장을 '그가 말을 안 해 주길래 내가 파면된 줄 알았다'로, (45)의 문장을 '그가 그여자를 사랑하길래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로 바꾸면 적격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선행절의 서술어가 형용사나 일부의 자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어도 가능하다.

- (46) (나는) 좀 심심하길래 (나는) 산보삼아 나왔지.
- (47) (나는) 저녁나절 출출하길래 저 하나 나 하나 먹으려고 달걀을 두 개 삶았지요.

- (48) (나는) 아들이 군대에 가자 허전하길래 대학생 몇명 하숙을 쳤지.
 (49) (나는) 도서관에서도 통 네 얼굴을 볼 수 없고 연락도 없어서 궁금하길래 찾아온 것 뿐이야.
 (50) (나는) 그 장농 안이 이상하길래 (나는) 열어보고 싶었어요.
 (51) (나는) 시간이 있길래 동경대 캠퍼스엘 갔었습니다.
 (52) 나는 이 책이 좋길래 (나는) 세번씩이나 읽었다.
 (53) (나는) 하도 화가 나길래 나와 버리고 말았어.
 (54) (나는) 문득 잃어버린 도장 생각이 나길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더니 도장이 없었다.
 (55) (나는) 그 소릴 들으니까 정신이 줄 나길래 방으로 뛰어들어와 전황하는 거예요.
 (56) (나는) 그래 겁이 나길래 집으로 도망가서 방공호 속에 숨어 있었죠.

(46)-(52)까지는 ‘심심하다, 기쁘다, 허전하다, 답답하다’와 같은 원인 심리형용사, ‘좋다, 궁금하다’와 같은 대상 심리형용사, ‘출다, 출출하다’와 같은 감각형용사, ‘시간이 있다’와 같은 소유 형용사가¹⁴ 선행절의 서술어로 쓰인 경우이다. 그리고 (53)-(56)까지는 ‘화가 나다, 생각이 나다, 정신이 나다, 겁이 나다’와 같이 자동사가 선행절의 서술어로 쓰였다. 이들은 [NP₁-이/가 NP₂-이/가 V]의 격틀을 가진 2자리 서술어인데 ‘NP₁’이 1인칭 주어인 ‘나’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선행절의 서술어가 비행위성 자질을 갖는 형용사와 일부 자동사일 경우, 선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도 가능하다. 이것은 앞으로 논의할 ‘-길래’의 의미특성과 관련이 있다. ‘-길래’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낼 경우, 그 근거를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것에서 찾는다. 형용사와 일부 자동사와 같은 비행위성 동사들은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상태를 나타낸다. 즉 이러한 동사도 화자 자신의 내부적인 것이라기보다도 타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래’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길래’가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 근거’로 쓰일 때에는 비동일주어 제약이 있으며, 후행절은 1인칭이어야 하고 선행절은 1인칭이어서는 안 되나, ‘-길래’와 결합하는 서술어가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와 같은 비행위성 자질을 갖는 서술어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그러나 후행절이 서술문이지만 ‘화자가 추측의 근거’를 말하는 경우에는 선·후행절의 주어의 제약이 없다.¹⁵ 아래 (57)-(61)의 예문들은 후행절의 서술어에 ‘-겠-’을 수반하여 화자의 추측하여 발화한 문장들이다. 이들은 선후행절의 주어에 제약이 없다.

- (57) 어른이 애들에게 공연히 매질을 했겠니, (애들이)다 매맞을 짓을 했길래

¹⁴ 형용사를 격틀에 따라 분류한 유현경(1996)을 참조했다.

¹⁵ 전혜영(1989: 110)에서는 ‘-기에’가 후행절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낼 경우에 후행절이 1인칭이 아니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길래’에도 적용된다.

(어른이) 때렸겠지.

(58) 내가 부족하길래 선생님이 꾸중하시겠지.

(59) 선생님이 화가 나셨길래 (선생님께서) 꾸중하셨겠지.

(60)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길래 (철수가) 전화도 못하는 거겠지

(61) 지가(자기가) 잘못했길래 (자기가) 못 들어오는 거겠지.

(57), (58)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지 않으며, (59), (60)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다. 그리고 (61)에서는 동일한 주어로서 역행재귀화가 되어 쓰였다. 이렇게 추측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의 제약은 없지만, 화자가 직접 발화한 문장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길래'절의 후행절이 의문문일 경우에도 주어의 제약이 없다.

(62) 그치가 나랑 무슨 웬수가 돼 있길래 (그치가) 내 속을 이렇게 후비고 나서지?

(63) 사장님이 얼마나 잘났길래 (사장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64)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당신은) 쓰레기 통 뒤에 숨어서 남의 집 동정을 살피느냐.

(65) 도대체 (그는) 학생들에게 무슨 소리를 해냈길래 (학생들이) 선생을 선생 같지도 않게 보고 달려드는 거야.

(66) 내가 도대체 뭘했길래 김가가 가타부타 하는 거야?

위의 예문 (62)-(64)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도 적격함을 보여 주고, (65), (66)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름에도 '-길래'의 의문문 구성이 적격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길래'절이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인 근거'를 나타낼 때에는 주어의 제약이 있으며, '추측의 근거'나 후행절이 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의 제약이 없다.

3.1.2. 시상 제약

'-길래'가 '근거'로 해석될 경우 대부분 선행절에는 시상 형태소가 없거나 '-었-'이 올 수 있다.

(67) 그가 어제 떠나길래 나는 오늘 떠났다.

(68) 그는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길래 양반 선비로만 알았다.

(69) 3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길래 사방으로 찾았던 말이야.

(70) 웬 젊은 놈이 찾아 왔길래 내가 욕을 해서 쫓아 보냈지.

(71) 내 조카 녀석이 그 병을 진단받구 왔길래 물어보는 말이지 뭐.

(67)-(71)처럼 ‘-길래’가 ‘근거’로 쓰일 경우는 선행절의 서술어에 ‘-었-’이 나타나거나, 시상 형태소가 붙지 않는다. 시상 형태소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이 때의 시상은 부정의 시상이라고 할 수 없다. 선행절의 시제는 후행절에 따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완(1996: 111)에서는 어미를 선행절의 시제 해석을 후행절의 상황시를 기준시점으로 하느냐, 발화시를 기준시로 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상대 시제적 어미, 후자를 절대 시제적 어미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종속접속어 미들은 상대시제적 어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길래’로 연결된 절도 선행절이 시제는 후행절의 상황시를 기준으로 삼는 상대 시제적 어미로 볼 수 있다. ‘-길래’로 연결된 문장은 위 (67)-(71)처럼 대부분 선행절의 상황이 후행절의 상황보다 선시(先時)적이며, 후행절의 상황시는 발화시보다 선시적이다. 따라서 선행절의 상황과 후행절의 상황은 계기적이면서 연속적이어야 한다. 즉, ‘-길래’는 ‘후행절의 행동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절의 상황이 후행절보다 앞서야 하며, 또한 후행절의 상황시는 발화시보다 앞서야 한다. 따라서 [선행절의 상황시 >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와 같은 순서를 보여준다.

그런데 실제 자료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선행절의 서술어에 ‘-겠-’이 결합된 다음과 같은 예들도 가능하다.

(72) 그가 오늘 오후에 떠나겠길래 나는 어제 떠났다.(오늘 아침에 말함)

(73) 오늘 아침 일찍 바르샤바발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겠길래 나는 어제 부여에서 서울로 왔다.

(72)의 문장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선행절의 상황시와 후행절의 상황시를 연결해 보면 ‘그는 오늘 오후에 떠날 것 같아서 내가 어제 떠났음을 오늘 아침에 말했다’로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면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 > 선행절의 상황시]와 같다. 그리고 (73)은 오늘 오후에 한 말로서 ‘오늘 아침에 바르샤바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제 부여에서 올라 왔다’로 해석되므로, [후행절 상황시 > 선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로 정리할 수 있다. 실제 자료에서 이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구문은 다음과 같다.

(74) 그러나 그때는 아무래도 안 되겠길래 내릴 무렵에 운전사에게 말해 보았다.

(75) 나중에 공명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겠길래 말씀을 드립니다.

(76) 동지도 알 건 다 알고 있어야 하겠길래 말해 준 거요.

(77) 그날 밤에 나는 암만해도 잠을 못 자겠길래 뒤척거리다가 그랬지요.

(74)-(77)의 예문들은 선행절의 서술어에 ‘-겠-’이 결합되었는데, 다른 조건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제약은 지키고 있다.

그리고 후행절의 시상은 미래나 추정을 나타내지 않고 현재나 완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예문 (78)-(81)에서 보듯이 만약 후행절의 시상이 미래나 추정이 된다면 비문이 된다.

- (78) 동료 국악인들이 자꾸 부추기길래 결심해 버렸어요/*결심하겠어요/*결심할 것입니다.
- (79) 저의 정치관을 듣고 싶어하길래 정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정치 경력부터 들려 줬습니다/*들려 주겠습니다/*들려줄 것입니다.
- (80) 그 장 농안이 이상하길래 열어 보았어요/*열어 보겠어요/*열어볼 거예요.
- (81) 시험이 끝났길래 흥가분한 기분으로 교수님께 차 한잔 얻어 마시려고 왔어요/*오겠어요/*올 거예요.

대부분의 '-길래'로 연결된 문장은 [선행절 상황시 > 후행절 상황시 > 발화시]로 시간적 순서가 매김되는데,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시상 제약은 후에서 다룰 '-길래'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길래'의 기본적인 의미가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후행절의 상황시는 발화시보다 앞서야 한다.

'-길래'가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라는 시상 제약은 '화자의 추측의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있다. '추정'을 나타내는 시상형태소가 후행절의 서술어에 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행절은 현재이거나 완료상이어야 한다. 앞서 든 (57)-(61)예문을 다시 보기로 한다.

- (57) 어른이 애들에게 공연히 매질을 했겠지, 다 매맞을 짓을 했길래 때렸겠지.
- (58) 내가 부족하길래 선생님이 꾸중하시겠지.
- (59) 선생님이 화가 나셨길래 (선생님께서) 꾸중하셨겠지.
- (60) (철수가) 시험에 떨어졌길래 (철수가) 전화도 못하는 거겠지.
- (61) 지가(자기가) 잘못했길래 (자기가) 못 들어오는 거겠지.

(57)-(61)의 구문은 화자가 후행절의 근거를 선행절로 추측한 구문인데 모두 후행절에 '-겠-'이 결합되어 있다. 이 때 '-겠-'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정을 나타내는 형태소로서 후행절 뿐만 아니라 선행절도 성분지휘한다. (57)의 구문은 [[[아이들이 매맞을 짓을 했길래][어른이 때렸]겠지]로 '-겠-'은 후행절 뿐만 아니라 선행절에도 영향을 준다. (58)-(61)의 구문에서도 '-겠-'은 선행절까지 성분지휘하는데, 이것을 선행절의 상황시, 후행절의 상황시, 발화시를 기점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해 보면 [선행절의 상황시 >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임을 알 수 있다.

'-길래'의 이러한 시상 제약을 '-기에'와 비교해 보면 '-기에'에는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따라서 '-기에'가 쓰인 예문 (82)는 적격하나, '-길래'가 쓰인 예문 (83)은 비문이 된다.

- (82) 힘이 필요하기에 (나는) 부지런히 배웠다./배울 것이다./배우겠다.

(83) 힘이 필요하길래 (나는) 부지런히 배웠다./*배울 것이다./*배우겠다.

이것은 ‘-기에’는 시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비해 ‘-길래’는 반드시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야 한다는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길래’로 연결된 선·후행절의 상황시와 발화시를 기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라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선행절의 상황시는 후행절의 상황시보다 앞설 수도 있고, 발화시보다 앞설 수도 있다.

3.1.3. 후행절 서법의 제약

‘-길래’로 연결된 문장은 후행절에 제약이 있어서 서술문과 의문사 있는 의문문만 가능하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과 명령문, 청유문은 올 수가 없다.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84) 시간이 없길래 일을 빨리 했습니다./했다.

(84-1) *시간이 없길래 일을 빨리 했습니까?/했니?

(84-2) *시간이 없길래 일을 빨리 합시다./하자.

(84-3) *시간이 없길래 일을 빨리 하십시오./해라.

(85)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나는 우산을 안 가지고 왔다.

(85-1)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너는 우산을 안 가져 왔니?

(85-2)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우산을 가져 가지 말자.

(85-3) *아침에 비가 안 오길래 우산을 가져 가지 말아라.

위와 같이 ‘-길래’는 후행절의 서법에 제약이 있어서 서술문에만 쓰인다. 이것은 ‘-길래’가 ‘근거’를 나타낼 때, 후행문의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하고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이므로 화·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청유형이나 명령형에는 쓰일 수 없다. 또한 청자가 주어가 되는 의문형에도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핀 시상 제약때문에 발화시 이후에 화·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도 쓰일 수 없다.

이것을 ‘-기에’와 비교해 보면, 후행절의 서법면에서 ‘-기에’는 ‘-길래’에 비해 덜 제약적이다.

(84') 시간이 없기에 일을 빨리 했다.

(84-1') 시간이 없기에 일을 빨리 했니?

(84-2') ?시간이 없기에 일을 빨리 하자.

(84-3') ?시간이 없기에 일을 빨리 해라.

(85') 아침에 비가 안 오기에 나는 우산을 안 가지고 왔다.

- (85-1') 아침에 비가 안 오기에 너는 우산을 안 가져 왔니?
- (85-2') ?아침에 비가 안 오기에 우산을 가져 가지 말자.
- (85-3') ?아침에 비가 안 오기에 우산을 가져 가지 말아라.

(84')-(84-3'), (85')-(85-3')에서와 같이 '-기에'는 후행절의 서법에서 '-길래'보다 더 제약적이다. '-길래'는 (84-1)과 (85-1)에서 보았듯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후행절에서 받을 수 없으나, '-기에'는 (84-1')과 (85-1')에서 보듯이 의문사 없는 의문문도 후행절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적격하지는 않지만 (84-2', 3')와 (85-2', 3')와 같이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도 '-기에'는 용인가능하다. 이것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러기에'와 '그러길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86)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배워라/배우자**
- (87)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길래 부지런히 ***배워라/*배우자**

'그러기에/그러길래'는 부사로 매김되지만 '그러-기에/그러-길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기에'와 '-길래'의 특성을 유지할 것이다.¹⁶ (86), (87)를 비교해 보면 '-기에'가 쓰인 (86)의 문장은 명령문과 청유문이 가능하나, '-길래'가 쓰인 (87)의 문장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행절에는 서술문만 가능하다는 제약은 '-길래'에 적용되고, '-기에'는 후행절의 서법면에서도 '-길래'보다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사를 수반한 의문문은 '-길래'로 연결이 가능하다.

- (88)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남자들이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전화질이나?
- (89) 웬 높이길래 밤마다 수상한 짓이나?
- (90) 아니 무슨 일들이길래 난리들이야?
- (91) 무슨 풍상을 겪었길래 옥골갈던 신수가 이 모양인가?
- (92) 대관절 김서방은 어딜 다녀오길래 김서방만 보면 마미가 저러는구?
- (93) 체면이 있지 어떤 짓을 하구 다녔길래 시세가 폭락이야?

이 경우에는 문장 형태는 '질문'이지만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에는 '대관절, 도대체, 대체'와 같은 문장부사와 공기한다.

3.1.4. 후행절 서술어의 제약

'-길래'는 "1인칭 화자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일 경우, 후행문의 서술어에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후행절의 서술어는 동작동사이어

¹⁶ 문법화 현상을 설명하는 준칙 중에 '유지의 준칙(the principle of persistence)'이 있다. 이는 Hopper (1991)에서 비롯된 개념인데, "문법화/어휘화가 고도로 진전이 되어 다른 범주로 매김된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어휘적 의미와 특성을 유지한다"는 준칙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주호(1997)에서 논의되었다.

야 한다는 것이다.

- (94) 한가한 시간이 났길래 어린 시절 얘기를 한 토막 해 본 거야.
 (95) 책이 나왔길래 가져왔다.
 (96) 마침 그녀가 새벽 기도에 나왔길래 조용히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다.
 (97) 전 그냥 귀에 낫설게 들리길래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98)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길래 밖의 일이 바쁜 줄만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동작동사일 경우에는 가능하나, (99)-(103)과 같이 형용사가 후행절의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 (99) 니가 화장을 곱게 하길래 (나는 네가) *예쁘다.
 (100) 네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나는 *슬프다.
 (101) 아들이 군대가길래 나는 *허진하다.
 (102) 낙엽이 떨어지길래 (나는) *쓸쓸하다.
 (103) 시험에 떨어졌길래 (나는) *우울하다.

(94)-(98)의 후행절의 서술어는 동작동사이고 (99)-(103)은 형용사이다. ‘-길래’는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것이므로 후행절이 1인칭 주어라고 하더라도 형용사가 올 수 없다. 이를 동사로 바꾸어 보면 위의 (99)-(103)의 문장들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후행절은 동작동사만 와야 한다.

그러나 선행절의 서술어에는 제약이 없다.

- (104) 그가 술을 마시길래 나도 한잔 달라고 했다.
 (105) 맞은 편에 앉은 여학생이 예쁘길래 말을 시켜 보았다.
 (106) 폭력을 당하는 이가 외국인이길래 나는 애써 외면했다.

(104)-(106)과 같이 동작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지정사에도 ‘-길래’는 연결될 수 있다. 단지 앞절에서 밝힌 대로 선행절의 주어가 1인칭인 경우에는 형용사나 몇몇 자동사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기에’에는 선·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이 없다.

지금까지 ‘-길래’의 통사적 특성을 주어의 인칭 제약, 시상제약, 후행절의 서법 제약, 그리고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을 통해서 고찰해 보았는데, ‘-길래’가 ‘-기에’보다도 통사적인 제약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2. ‘-길래’의 의미

‘-길래’가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으)므로, -(으)니까, -어서 -느라고’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연결어미인 ‘-어서’로 연결된 다음 문장을 살펴 보면서, ‘-길래’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 (107) 엄마가 돈을 주셔서 (내가) 학원에 등록했다.
주시길래
- (108) 물가가 비싸서 (내가) 살기 힘들다.
*비싸길래
- (109) 철수가 오지 않아서 영화가 철수네 집으로 전화를 했다.
*오지 않길래

(107)-(109)의 예문은 모두 '-어서'로 연결된 문장들이다. 예문 (107)의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므로 '-길래'로 교체될 수 있고, 예문 (109)는 후행절의 주어가 3인칭인 '영화'이므로 '-길래'로 교체되지 못한다. 그런데 (108)은 선·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지만 '-길래'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문 (108)이 '-길래'로 교체되지 못하는 것은 후행절의 서술어 때문으로 보인다. '살기 힘들다'는 것은 화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화자의 상태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길래'에는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주어의 인칭 제약 외에도 후행절의 서술어는 화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동사가 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다음의 (110)-(112)예문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 (110) 아이들이 {떠들어서/떠들기에/*떠들길래} 시끄럽다.
- (111) 아이들이 {떠들어서/떠들기에/?/?/떠들길래} (내가) 공부할 수 없다.
- (112) 아이들이 {떠들어서/떠들기에/떠들길래} (내가) 아이들을 혼내 주었다.

위는 모두 '-어서' 연결문으로서 '-기에'로는 교체할 수 있지만, '-길래'로 교체될 수 있는 예문은 (112) 뿐이다. (110)-(112)의 예문들은 앞서 제시한 '-길래'의 통사적 제약인 주어 제약을 모두 지키고 있는데, (112)만이 '-길래'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은 후행절의 서술어 때문이다. 예문 (110)의 후행절의 서술어가 '시끄럽다'이고 (111)은 '공부할 수 없다'이며, (112)는 '아이들을 혼내 주다'이다. (111)은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임에도 불구하고 '-길래'로 교체되지 못한다. 이것은 예문 (110)의 후행절 서술어는 '시끄럽다'로서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110)의 예문이 '-길래'로 교체될 수 없는 것은 '공부할 수 없다'가 화자의 행위라기 보다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112)의 '아이들을 혼내 주다'는 것은 화자의 의지가 개입된 적극적 행동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문 (112)만이 '-길래'로 교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길래'가 이유, 원인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은 "1인칭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낼 때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예문도 비문이 된다. (113)의 '얼마나 좋은지요'나 (114)의 '피엑스에서 빼낼 수 있다'나 (115)의 '매일 늦다'는 서술어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지 자신의 행위를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13) 눈이 이렇게 내려서/*내리길래 (내가) 얼마나 좋은지요.

(114) 지금도 손이 달아서/*달길래 (내가) 피엑스에서 빼낼 수 있지요.

(115) 회사 일이 바빠서/*바쁘길래 (내가) 매일 늦습니다.

또한 ‘-길래’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비의도적이고 자신의 내부적인 것이 아닌 타의적인 것을 제시할 때에만 적격하다.

(116) 가: 왜 강릉에 들렀어?

나: ㄱ. 내 고향이 {강릉이어서/강릉이기에/*강릉이길래} 올라오는 길에 들렀다.

ㄴ. 그의 고향이 마침 {강릉이어서/강릉이기에/강릉이길래} 올라오는 길에 들렀다.

(116)에서 ‘왜 강릉에 들렀어?’라는 질문에, (나, ㄱ)처럼 ‘내 고향이 강릉이어서/강릉이기에’는 가능하나, ‘내 고향이 강릉이길래’는 부적합하다. 이것은 ‘내 고향이 강릉이다’는 것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강릉에 들른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ㄴ)의 ‘그의 고향이 강릉이길래’에는 화자의 본래 의도는 강릉에 가고자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마침’ 그의 고향이 강릉이어서 경유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길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외부적이고 타의적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마침’과 자주 호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17) 마침 택시가 오길래 잡아타구 집에 가서 보자길 풀어 보았다.

(118) 마침 술집가에 술집들이 눈에 띄길래 나는 사내를 이끌었다.

(119) 전 담배가 마침 떨어졌길래 지금 담배를 사던 참입니다.

(120) 그 얘기를 마침 하길래 내 뜻을 밝혔지.

(117)은 ‘왜 택시를 탔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마침 택시가 오길래’, (118)은 ‘왜 술집에 갔어요?’에 대한 대답으로 ‘마침 술집들이 눈에 띄길래’가 쓰였다. (119), (120)도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그렇게 자신을 행위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외부적인 것에서 취하고 있다.

이것은 ‘-길래’가 선행절의 주어를 1인칭으로 취할 수 없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즉,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외부에서 취하기 때문에 선행절의 주어를 1인칭으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조오현(1992)에서는 ‘-기에’를 다루면서 ‘-기에’가 화자 자신의 행위의 동기를 자기 이외의 곳에서 찾기 때문에 선행절에 1인칭이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길래’에 적용됨을 예문 (43’)-(4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3’) 나는 사장님한테서 야단을 맞았기에/*맞았길래 (나는) 기분이 나빴다.

(44') 나는 외국에 갔다왔기에/*갔다왔길래 (나는) 내가 과연 될 줄 알았다.

(45')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에/*사랑하길래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인 근거'의 의미 외에도 '-길래'는 '화자가 추측한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121) 어른이 애들에게 공연히 매질을 했겠니, 다 매맞을 짓을 하길래/했길래
(어른이) 때렸겠지.

(122) 어머니가 화가 나시길래/나셨길래 (어머니) 꾸중하셨겠지.

(123) 시험에 떨어졌길래 (그가) 전화도 못하는 거겠지

(124) 돈을 다 썼길래 (지가) 못 들어오는 거겠지.

(125) 무슨 사고가 생겼길래 지금까지 연락이 없지.

이때는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지키지 않아도 적격하다. 그러나 이 때도 화자가 직접 추측할 때만 쓸 수 있다. '-길래'가 추측의 근거를 나타낼 경우에 후행절의 시상은 항상 '-었-겠-'과 같은 [완료상-추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길래' 앞에는 '-었-'과 같은 완료 시상 형태소가 나오며, 후행절에는 반드시 추정을 나타내는 형태소인 '-겠-'이 나와야 한다. '-겠-'의 의미에 대해 장경희(1985: 53)에서는 과거시제를 지닐 때 종결절의 '-겠-'은 [집작]이나 [결과집작]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화자가 추측하는 근거를 '-길래'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길래'는 후행절로 의문사 있는 의문문을 받기도 한다.

(126)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남자들이 아침에 출근도 하기 전에 전화질이나?

(127) 웬 높이길래 밤마다 수상한 짓이나?

(128) 아니 무슨 일들이길래 난리들이야?

(129) 무슨 풍상을 겪었길래 옥골갈던 신수가 이 모양인가?

(130)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목소리가 그리도 고울까?

이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을 묻기보다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청자나 문장에서 언급된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탄문에 가깝다. (126)의 문맥의미는 아침 일찍 전화한 여자에 대한 비난, (127)의 문맥의미는 수상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다. 또한 (128)도 조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 (129)은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위로를 나타내고 있으며, (130)는 목소리가 고운 것에 대한 칭찬의 문맥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길래'는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기본적인 의미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타의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외에도 '화자의 추측의 근거'나 '화자의 근거에 대한 요구'를 나타낼 때 쓰인다.

4. 맺음 말

이 글에서는 ‘-길래’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길래’를 연결어미의 항목에서 제외시키거나, ‘-기에’의 이형태로만 보아 왔는데, 언어 자료를 통해 본 결과 ‘-길래’는 ‘-기에’와는 의미적·통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먼저 ‘-기에’와 ‘-길래’를 교체해 봄으로써 두 형태간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길래’는 선·후행절의 비동일주어제약과, 인칭 제약이 있어, 후행절은 1인칭이며, 선행절은 1인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에 비해 ‘-기에’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따라서 모든 ‘-기에’절이 ‘-길래’로 교체될 수 없다. 그리고 ‘-기에’는 격식체에서 ‘-길래’는 비격식체에서 쓰임을 밝혔다.

‘-길래’의 기본적인 의미는 ‘화자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아닌 외부적인 것으로부터의 근거’를 표시한다. 이것은 후행절이 서술문으로 제약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외적인 근거’나 ‘화자의 추측에 의한 근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문문일 경우에는 후행절의 근거를 요구할 때 쓰인다. 이러한 ‘-길래’의 의미로 인해 여러 가지 통사적인 제약이 나타난다. 첫째, 후행절이 서술문으로서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낼 때에는 선·후행절 주어의 제약이 있다. 비동일주어 제약과, 인칭제약인데, 선·후행절은 동일주어가 쓰이지 못하며, 후행절은 1인칭 주어만 가능하고, 선행절은 1인칭이면 안 된다는 제약이다. 단, 선행절의 서술어가 형용사 및 일부 자동사와 같은 비행위성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선행절에 1인칭 주어가 올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추측의 근거’나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의 제약은 없다. 둘째, 시상의 제약으로서 후행절의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선시(先時)적이어야 한다. ‘-길래’는 상대 시제적 어미로서, 대부분의 ‘-길래’절은 [선행절 상황시 > 후행절 상황시 > 발화시]의 시간관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선행절의 상황시는 후행절의 상황시보다 뒤로 갈 수도 있고, 발화시보다 뒤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길래’절은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라는 제약을 가진다고 요약할 수 있다. 셋째, 후행절 서법은 서술문과,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다. 이 제약은 ‘-길래’의 선후행절 비동일주어제약으로 인해 의문사 없는 의문문은 올 수 없으며, [후행절의 상황시 > 발화시]라는 제약으로 화·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문과 청유문은 올 수 없다. 이에 비해 ‘-기에’는 ‘-길래’보다 덜 제약적이다. 넷째, 후행절의 서술어 제약인데,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낼 때에는 후행절의 주어는 반드시 동작동사(행위성 동사)가 나와야 한다. 이것은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후행절의 서술어가 형용사와 같은 비행위성 동사가 올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선행절의 서술어에는 제약이 없다. 이와 같은 ‘-길래’의 통사적 제약은 ‘-길래’를 ‘-기에’의 이형태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상을 통해서 '-기에의 이형태로만 여겨졌던 '-길래'가 독립된 연결어미라는 사실을 밝혔다. 남은 문제는 '-길래'의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길래'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좀더 보완하는 일인데, 이는 다른 지면을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75) '현대국어의 어말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응용언어학 7-1.
 _____ (1983) 국어 문법 연구, 탑출판사.
 구현정 (1996) '조곤씨끝의 연구사,'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김승곤 엮음, 도서출판 박이정.
 권재일 (1983) '현대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언어학 6.
 김승곤 (1984) '한국어 이음씨끝의 의미 및 통어 기능연구(1),' 한글 186.
 남기심 (1985)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말 1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_____ (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 학술 자료사.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서정수 (1994) 국어 문법, 뿌리깊은나무.
 서태룡 (1987)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안주호 (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유현경 (1996) 국어 형용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평현 (1989) 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신문화사.
 이상태 (1988) 국어 접속어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5) 국어 이음월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형설출판사.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탑출판사.
 전해영 (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재영 (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조오현 (1992) '현대국어의 이유씨끝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김승곤 엮음, 서광학술자료사.
 채 완 (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최현배 (1937, 196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동완 (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Hopper, Paul J.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ization,'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1*: ed., Traugott, Elizabeth & Heine, Bernd.

· 사전류

<국어대사전> (1991)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금성출판사.

- <우리말 큰사전> (1974/1989) 신기철/신용철 편, 삼성출판사.
 <우리말 큰사전> (1947/1989) 한글학회 편, 어문각.
 <현대조선말사전> (198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도서출판 백의 영인: 1988).
 <조선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 출판사.
 <새 국어사전> (1990/1995) 동아출판사.
 <우리말 맞춤법·표준어 사전> (1990) 남영신 편, 한강출판사.

ABSTRACT

On the Syntactic Properties and Meaning of Conjunction Ending ‘-killae(길래)’

Joo Hoh Ahn

This paper deals with the syntactic properties and meaning of the conjunction ending ‘-killae’. Because the syntactic restriction and meaning of ‘-killae’ are not in accordance with ‘-kie’, it is argued to be taken as one of the conjunction endings ‘-killae’ which has been dealt with as an allomorph of ‘-kie’ in preceding studies.

When changing ‘-kie’s clause to ‘-killae’s clause, first, I propose that the conjunction ending ‘-killae’ is different from the conjunction ending ‘-kie’ and ‘-killae’ is an informal style contrary to the formal style of ‘-kie’. The basic meaning of ‘-killae’ is the REASON of the speaker’s activity which relates not to speaker’s will(internal) but to the external situation.

The conjunction ending ‘-killae’ has syntactic restrictions different from ‘-kie’.

1. the restriction of non-identical subject of the former and the latter clause; necessarily the subject of the latter clause has to be the first person.
2. the restriction of aspect, which the situation time of the latter clause is antecedent to the utterance time.
3. the restriction of the sentence’s final mood, which can only be indicative mood or interrogative mood with interrogatives.

4. the restriction of verb; the latter clause must have an activity verb.

As above, I believe that '-killae'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allomorph of '-kie' because of the independent conjunction ending "reason" of '-kie'. I hope that studies of the properties of '-killae' might be deepened and widened by investigating the grammaticization processing of '-killae'.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0-749